

# 6개국 광산업협의회 참여, 2002년 협의회 회의 한국유치



◀ 2001년 6개국 광산업협의회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 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 광산업협의회가 내년 9월 서울에서 있을 예정인 2002국제광산업전시회 개최 기간중에 열린다.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 회장 김종수)는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지바 마쿠하리에서 열린 '국제광산업 2001 전시회'에 참가한 미국(OIDA) 일본(OITDA) 대만(PIDA) 영국(SOA) 등 4개국 광관련단체로 구성된 국제광산업협의회가 최근 제6차 회의를 열고 한국(KAPID)과 싱가포르(PAS)를 새로회원단체로 추가, 6개국 협의체로 확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4개국 광산업 단체로 구성된 국제광산업협의회는 96년 7월 17일 일본에서 개최된 후 4개국에서 연차적으로 순환 개최돼 오고 있다. 따라서 회의개최 가능성에 대한 인프라와 조건을 토의하고 동시에 KAPID에서 제시한 안과 기존 4개국 및 PAS의 조건을 비교한 결과 2002년 9월 5일부터 9월8일사이에 서울 COEX에서 국제 광산업 전시회 기간 중 회의개최를 제의한 안이 통과되어 제 7차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본 국제회의의 유치로 한국 광산업 육성전략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한국광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6개국 협의회는 또 광산업 발전을 위해 각국 협회가 밀접한 연계를 맺기로 원칙을 정했으며 광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사업에 각국 단체가 적극 참여해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대표단장으로 참여한 KAPID 오세종 부회장은 "6개국 협의회 참여와 내년 국제회의의 유치는 선진국이 우리나라 광산업에 대한 인프라와 성장가능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 6Th International Optoelectronics Association Meeting 협의회 개요

- ▶일 시: 2001년 7월 17일
- ▶장 소: 일본 지바 마쿠하리 프린스 호텔
- ▶참가국: OIDA(미국), PIDA(대만), SOA(스코틀랜드), KAPID(한국), PAS(싱가포르), OITDA(일본)

**주 회의 안건**

OIDA(미국), PIDA(대만), SOA(스코틀랜드), KAPID(한국), PAS(싱가포르), OITDA(일본)의 업무 소개와 앞으로 광산업 분야는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계속 커질 것이다.

광산업분야의 각국 협회가 서로 밀접한 연계를 맺으면서 서로 협조하기로 원칙을 정하였다. 광산업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사업에 각국의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가 제의되었다. 표준화 사업은 협회 및 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형태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또한 동사업관련 사항은 계속 연구하여 2002년 서울에서 열리는 7차 회의시 발표하기로 하였다.

표준화 추진방법에 대한 것은 추후 국제적 협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의 확대를 위해 독일 등의 관련 단체도 참여시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안건도 있었다.

**8개국 협의회 기타 토의 사항(대화 순서별)**

**OITDA**

Optoelectronic 분야는 새로운 제품이 나오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표준화는 특별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OITDA(일본)는 국제적인 기구의 힘을 이용해 표준화를 추진한다. 금일 미팅에서 이 안건에 대해 서로의 의견교환도 가능하다.

**SOA**

표준화는 회사(수요자와 공급자)가 특별한 규격 공급시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OIDA**

우선 회사의 로드맵을 비교하여 초기 단계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 시장 현황에 맞춰 국내 표준과 국제 표준을 추진해야 한다. 표준화는 측정표준, 공업표준, 업체표준(대기업 나름대로)의 3가지로 생각해야 한다.

우선 서로간에 협정(Agreement)에 의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모든 회사가 표준화에 따라 제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OITDA**

표준화를 위해 기술 Road Map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OIDA-OITDA의 Road Map을 비교할 수도 있다. 독일협회도 포함시켜야 한다.

**OIDA**

독일로 한정시키는 것보다 EU를 참여시켜야 한다.

**KAPID**

기술발전(신기술)이 표준화보다 빠른 경우가 대다수이다. 회사에서 제품정보가 있어야 Road Map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표준화를앞서서 추진할 수 있다.

**PIDA**

표준화는 Market Trend를 반영해야 한다.

**OIDA**

일본의 자료 중에서 최근에 인기있는 제품(디스플레이)에 대한 통계자료는 정확하나, 인기가 없는 제품에 대한 자료는 신빙성이 적다.

**OITDA**

그런 면이 있음을 인정하며, 다음 회의

에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SOA**

Market Trend를 중시하여 표준화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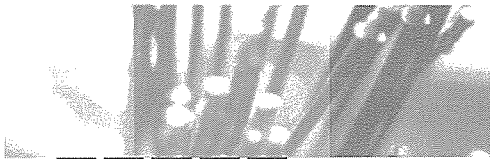
**OIDA**

다음 회의시에는 각국 협회가 표준화와 Market Trend에 대해서 발표한다. 참가국 동의로 차기 회의 주제로 설정 및 폐회

**세계 광산업 6개국 협의회**

- OIDA : Optoelectronics Industry Development Association(est 1991. 7)
- PIDA : Photonics Industry &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est 1992. 8)
- SOA : Scottish Optoelectronics Association(est 1994. 10)
- KAPID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est 2000. 5)
- PAS : Photonics Association Of Singapore(est 2000. 7)
- OITDA : Optoelectronic Industry And Technology Development Association(est 1980 7)





# 광산업 육성 위해 재미 한인과학자와 네트워크 구축



▲ UKC2001 행사에는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대표단을 파견, 국제교류사업을 협의했다.  
(사진 좌측이 진흥회 전영복 전무)

**재미**한인 광과학 기술자와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광산업 육성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국제교류 협력 사업 및 인력 채용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한국 광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미국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소재한 MIT대학교에서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KSEA) 주최로 개최된 2001미·한 과학기술 및 기업 컨퍼런스(UKC2001)에 한국광산업진흥회의 전영복 전무를 대표로한 대표단이 파견되어 한국광산업 프로젝트 홍보와 광산업 육성을 위한 재미한인 광관련 과학자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UKC2001에 재미과학자 협의회 성낙호 회장, 정찬일 차기회장을 비롯한 재미 과학자 300여명을 비롯한 약 400여명 참석했으며 40여개의 썸

션별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는 이번 컨퍼런스에 서 한국광산업 추진 내용과 육성정책을 설명하고 재미한인과학자 협의회(KSEA)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했으며 한국 광산업에 대한 홍보부스를 따로 설치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재미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협의에서는 국내 광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자문과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있었으며 재미한인과학자 네트워크 구축과 광산업에 대한 전망 및 최근 광통신 시장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광산업이 IT산업 발전으로 21세기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 분야에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미국 내 대기업들

도 계속해서 인력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IT산업 불황으로 주춤거리고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광산업은 발전전망이 높고 여러 산업분야에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의 IT산업 불황을 최대한 이용해야 할 것이며 자체적인 인력양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재미한인과학자 중에도 Photonics를 전공한 학자는 그리 많지 않으나 현재 석, 박사 과정에 있는 젊은 과학자들이 다수 학업 중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광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국내에 기반이 축적되어 있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육성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산업추세와 시장전망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국내 광산업이 진흥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초기단계에서는 대기업의 광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내다 봤다.

특히 국내에서 그동안 Photonics 분야에 연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여 여러 가지로 안타까웠으나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국가산업 미래를 볼 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재미한인과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제시되기 바라며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KSEA와 별도로「재미한인 광과학자 협의회」를 조직화하여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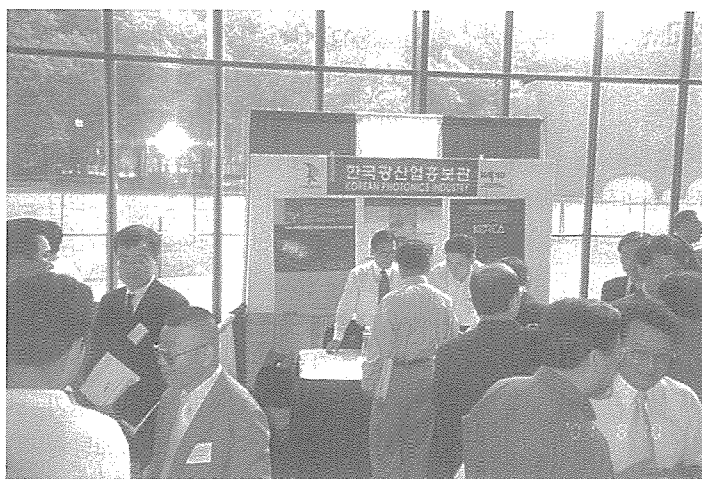
재미한인 광과학자 협의회는 옵트론 엑스(Optron X) 김유송 컨설턴트(전 포항공대 학장)가 중심이 돼 15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현재

미국에서 활동중인 광주시의 김용환 파견관이 창구 역할을 맡아 공동연구 사업과 시장동향 분석, 인력채용, 기업 파견 연수훈련, 기술정보 사업 등을 펴게 된다.

재미 한인과학자 협의회는 내년 UKC2002행사를 서울에서 8월중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히며 내년 행사에 재미한인 광과학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광관련 섹션을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한국광산업진흥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광산업 육성정책 설명회에 참석한 재미 한인 과학자들은 KAPID가 발표한 한국광산업 추진계획에 대해 21세기 신산업인 Photonics 산업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진흥에 관심을 갖고 추진한 사업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장래 국가과학발전을 위해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김시중 전 과학기술부장관, 안병엽 전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가해 한국 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재미 과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한국광산업에 대한 홍보부스를 따로 마련, 많은 관심을 받았다.